

특별행정구역 연구 및 섬 관광문화자원 벤치마킹을 위한

옹진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보고서



옹진군의회

(<http://council.ongjin.go.kr>)

I. 서론 - 공무국외출장 개요1

II. 본론 - 주요 연수내용3

① 출장목적

② 공식 방문기관

1. 국영 금문 주창
2. 국립 진면대학

③ 주요 현장시찰지

1. 적산갱도 시찰
2. 금문현 청사 방문 시찰
3. 마산관측소 시찰
4. 장개석 기념관 시찰

III. 결론 - 국외출장 종합의견14

I 서 론 -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 대만(금문도)

2. 출장목적

- 2022년 10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옹진군 연평면 방문시 서해 5도를 특별 행정구역으로 격상시켜 행정,재정,안보분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행정체제 개편 검토와 관련하여 서해5도와 유사한 금문도를 방문하여 금문도의 행정구역을 연구하고, 특산품을 활용한 관광 문화자원화 사례 를 시찰하여 행정, 경제적으로 우리군 발전방안을 도모하고자 함.

3. 출장기간 : 2024. 2. 28.[수] ~ 3. 2.[토] 3박4일

4. 출장자 인적사항 : 2명(의원1명, 의회직원 1명, 2명)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비 고
옹진군의회	의 장	이의명	남	
의회사무과	의회행정담당	허 정	남	
인하대학교	경기, 인천 씨그랜트 센터장	우승범	남	동행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민배	남	동행
인하대학교	씨그랜트 정책위원장	조현근	남	동행
인하대학교	씨그랜트 책임연구원	윤병일	남	동행
백령면	주민자치회장	장태현	남	동행
백령면	전 시의원	김필우	남	동행

※ 동행자 6명과 일정 공유

5. 주요 방문일정

일시	방문지역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 관계자 (직책)
2.28. (수)	타이페이 금문도		타이페이 경유 목적지 금문도 도착	
2.29. (목)	금문도	국영 금문주창 국립 진먼대학	금문주창 방문 매출 및 지역사회 교류, 공헌부분 브리핑 진먼대 방문 중국본토 대학과 교류로 평화지속 노력 청취	기획처 경리 歐陽良義 국제합작교류조 조장 정대행
3. 1. (금)	금문도 타이페이		양안전쟁시 금문도의 피폐했던 상황과 금문도의 특수성 확인 타이페이 101 전망대 관광자원화 벤치마킹	
3. 2. (토)	타이페이	주말 일정 (관광, 문화 운영 벤치마킹)	대만의 이승만, 박정희 격인 중정(장개석) 박물관 시찰	

II 본 론 - 주요 국외출장내용

1] 출장목적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서해 5도 특별행정구역 격상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 과 관련하여 백령도를 중심으로 특별행정구역 지정에 대하여 유사 지역인 금문도를 벤치마킹하여 지역사회의 역할을 연구하고
- 백령도에서 생산되는 벼 처리방안으로 금문도에서 생산되는 수수 전량을 구매하여 지역특산품으로 생산하는 금문주창과 같이 부가가치 높은 지역 특산품 개발하는 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주민소득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국외출장의 주 목적임

2] 공식 방문기관

1. 국영 금문 주창(國營 金門酒廠)

- o 주소 : 金門縣 金寧鄉桃園路1號
- o 방문일자 : 2024.2.29.(목) 09:00
- o 기관개요 : 1949년 대만과 양안간 전쟁을 계기로 주조, 진청진(金城鎮) 진먼청촌(金門城村)에 양조장 터를 잡고 '진청주창(金城酒廠)' 을 세워 금문고량주의 기틀을 다졌다. 그리고 진먼섬에 주둔한 군에 군납용으로 술을 납품하면서 사세를 확장시킴.

기획처 경리 歐陽良義(구양양의) 브리핑

○ 기관 소개:

- 대만 진먼섬에 위치한 지방공기업인 '진먼주창(金門酒廠)'에서 생산하는 백주로 도수 38%와 58% 두 종류가 많이 팔린다.

- 중국 국공내전 막바지 당시 진먼방위사령관이자 중화민국 푸젠성의 주석으로 진먼섬의 전권을 쥐고있던 후롄(胡璉) 장군이 평소 진먼섬의 군대와 지역주민이 소비할 술과 쌀을 모두 타이완섬에서 들여오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진먼섬이 수수를 재배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현지 주민들에게 수수 재배를 맡겨 수확된 수수를 군 보급품인 쌀과 맞바꾸고 맥주를 현지에서 생산하게 된다.
- 대만의 국민맥주이자 대표명주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대만 사람들에게 두루 인기가 있는 술이다. 금문고량주는 대만 맥주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 주요 질의 응답

Q. 금문고량주 회사 소유는

A. 금문현(지방정부)에서 지분 99% 소유

Q. 수수 구매는

A. 금문현에서 생산되는 수수의 100%, 전량 구매

Q. 구매단가는?

A. 수입수수의 3배가격으로 구매

Q. 수수 필요량과 구매량?

A. 5만톤이 필요하고 구매량은 6천톤

Q. 직원수와 현지주민 채용 인원은?

A. 직원수 1,150명, 전원 현지주민.

Q. 금문도 거주자 혜택은?

A. 교통비 지원, 전쟁시 금문도에 거주하던 당시 주민에 대한 노인복지, 연금 별도로 지급

○ 금문주창 방문 사진 및 담당자 명함



금문주창 전경



기획처 경리 브리핑



金門酒廠 生產品


金門酒廠
 www.kkl.com.tw

金門酒廠實業股份有限公司
KINMEN KAOLIANG LIQUOR INC.

企劃處 經理

歐陽良義

89248 金門縣金寧鄉桃園路1號
 No.1, Taoyuan Rd., Jinning Township, Kinmen County 892, Taiwan R.O.C.
 Tel : 886-82-325628#82801 Fax : 886-82-313718
 Mobile : 886-932-970197 E-mail : augst@mail.kkl.gov.tw
 統一編號 : 16436466

金門酒廠 企劃處 經理 歐陽良義(구양양의)

2. 국립진먼대학(國立金門大學)

- 주소 : 金門縣 金寧鄉大學路1號
- 방문일자 : 2024.2.29.(목) 14:30
- 방문내용 : 국립 진먼대학이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학술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있으며 중국 대학과 관계유지방안은 무엇인지 관계자 면담

○ 주요 브리핑 [國際合作交流組 組長 鄭大行]

- 국립금문대학(NQU) 연혁

- 1997년 진먼에서 국립가오슝 응용과학대학교 진먼분과로 설립
- 2003년 국립 진먼기술연구소
- 2010년 국립웨이모이대학교로 승격
- 개설학과 : 응용외국어학과외 9개 학과
- 개설대학원 : 해양대학원의 5개 대학원
- NQU는 해양과학, 공학, 비즈니스 연구화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
- 교직원수 150명, 학부생 3,700명, 대학원생 300명

□ 주요 질의답변 내용

- Q. 금문도와 흡사한 백령도의 상황, 어떻게 해야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수 있나?
- A. 금문이 발전할수 있었던 것은 3통(무역,통신,교통)이 교류가 되면서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Q. 진면대학이 중앙정부에 지원을 받는 방법은?

A. 먼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령을 제정했다, 그리고 법령을 운용할 수 있는 위원회(조직)를 구성한다.

- 법령은 주민들이 주로 먹고 살 수 있는 자립경제에 관한 특별법이 첫 번째
- 금문대학에서 연구를 많이 했고 금문의회에서도 대한 각별한 지원이 있다.
-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20년을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 국회의 야당과 여당의 협력도 중요함.

Q. 계엄하에 금문도 발전을 위한 계엄정부에서 한일이 있는지, 그리고 계엄해제 후 중앙정부에서는 금문도 발전을 위해서 한일을 알고 싶다.

A. 국제교류협회에서 담당하는 교수에게 연락해서 자료 제공하도록 하겠다.
(양안에 평화를 연구하는 교수가 있음.)

Q. 금문도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을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켰는데 우리 백령도는 아직 실행하지를 못하고 있다, 실행될수 있도록 금문도의 금문대학과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

A. 요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Q. 진면대와 샨면대는 어떤형식으로 교류를 지속 하고있는지?

A. 샨면대에 진면을 연구하는 학과가 있고 진면에도 평화를 연구하는 학과가 있어서 한달에 1번정도 교류하며 서로 연구한다.

Q. 양안관계가 안 좋았을 때는 어떻게 하나?

A. 관계는 좋을때도 있고 안 좋을때도 있음, 중앙정부의 정책을 따른다. 다만, 금면대와 샨면대가 각각 학술적인 연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 금문대학 방문 및 담당자 명함



국립 금문대학 전경



금문대학 조장과 질의문답 회의



금문대학 조장과 기념품 교환



국립 금문대학 국제합작교류조 組長 鄭大行

○ 금문도 내 시찰



적산갱도 시찰



금문현 견학



마산관측소 시찰



장개석 기념관 시찰

Ⅲ 결론 - 국외출장 종합의견

대만의 백령도 금문

대만에서 금문도까지 비행기로 2시간, 직선거리 180km

인천에서 백령도까지 222km, 쾌속선으로 4시간,

인천에서 연평도까지 124km, 쾌속선으로 2시간..

금문도 투쟁의 역사는

1949년 10월 장제스의 국민당정부가 본토에서 대만으로 쫓겨나

최후의 보류로 삼은 금문도, 중국군은 2만명을 투입했지만 국민당의 승리

이후 58년 8월 대규모 군사도발을 감행하여 10월5일까지 44일간 계속된

전투에서 47만발의 포탄을 쏘며 치열하게 공격했지만

중국군 포병진지에 대하여 반격하는 등 섬 전체가 지하화된

난공불락의 요새에서 처절하고 끈질긴 저항으로

중국은 결국 손을 들고 말았다.

너무도 흡사한 우리 서해5도(백령도, 연평도)와 대만의 금문도

금문도의 주민들도 서해5도 주민만큼이나 각박하게 살았을 것 같다.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서해5도에 군 시설을 설치하며

해안가 용치, 백령도 연평도의 지하터널 등 섬 요새화로 군사 기지화 할 때

금문도를 벤치마킹한 것을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역사적 배경은 흡사하나 비극 이후 국가(중앙정부)의 행정지원은 많이 다른 것 같다.

양안관계가 회복됨에 따라 금문도와 소금문도의 경관적 요소들을 관광자원화하는 과정과 이번 국외출장에서 보고 들은 대만정부에서 금문도를 우리나라 廣域道에 해당하는 금문현의 지휘를 부여하고 금문현 주민에 세제혜택, 연금지원 등 폭넓은 행정적·재정지원으로 주민의 정주환경에 특별한 대우를 부여한 것과 대비하여

우리 서해5도는 기초단체의 행정면으로 행정구역을 세분화하여 정주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서해5도 특별법으로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했으나 아직까지 획기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여전한 남북한이 대치상황인 한반도에서 동아시아의 유일한 냉전의 장벽으로 굳건하게 남아있다.

냉전과 분단이라는 시대적 상황, 도서의 요새화와 도서개발사업, 우리나라에서 북한과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정부에서 “서해5도에 사는 것 만으로도 애국”이라는 구호는 내륙과 가장 멀리 특수한 조건에서 생활하는 서해5도의 주민에 대한 국가의 책무, 우리의회의 책무는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된다.

이제, 인천시장님의 서해특별행정구역 지정 검토에 대하여 대만 금문현의 사례를 참고하고 구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백령도 생산 벼의 전량수매 방안은
금문주창과 같이 안정적 판매가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백령도 특산품으로 쌀을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로부터 우리 서해5도보다 특별한 지원과 대우를 받고 있는
금문도를 견학하며 주민이 편안한 용진을 만들기 위해 좀 더 노력하는 의회를
다짐해 본다.